

전 남



한반도 모양의 화순 동북호 '장관' 화순군 동북면 웅성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북호와 적벽(赤壁) 모습이 3개의 한반도 형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동북호 뒤편으로 무등산이 자리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월소득 480만원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전남 4인가구 기준... 3월부터 6만8700명 무상보육 혜택

다음달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해 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액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258만 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388억5100 만원을 지원, 5만2903명이 월소득액

에 따라 각각 100%, 60%, 30% 등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3월부터 이보다 18.5% 늘어난 1639억4600만원을 지원해 6만 8700명이 전액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장애 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

액을 지원한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

면 된다. 도는 앞으로 시설이용 영유아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시설 미이용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펼치고, 다문화 가치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의 생애 초기 긍정적인 출발 보장과 저출산, 고령화시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고막 주식회사' 16일부터 주식 청약

전남도가 특산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을 갖춘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3일간 '새고막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청약에 나선다. 전남도는 여수·순천·고흥·보성지역 새고막 어업인을 중심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고막(주)를 설립하기로 하고, 주식 청약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도내 새고막 생산량은 연간 5701t으로 전국 생산량(6831t)의 83%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어업인 설명회와 추진위 구성, 사업성 평가에 이어 12월부터 주식 가격약을 받아왔다. 이어 가격약면 어업인, 가격약을 못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청약 업무는 교보증권이 대행하게 된다. 시·군별로 여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소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순천은 17일 오후 3시부터 순천시 풍덕동 한국 새고막협회에서, 고흥과 보성은

18일 오후 1시부터 고흥 과역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한다. 도는 이번 주식청약을 마친후 3월까지 청약금 납입을 받아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을 구성하고, 4월중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새고막 주식회사에 이어 홍합, 새우 등을 대상으로 어업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치안도 '맞춤형 서비스'

여수경찰 섬지역 대상 '해피 아이랜드' 호응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가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치안서비스인 '해피 아이랜드'를 적극 실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경찰은 지난 10일 삼산면 거문도에서 여수 한려 엑스포병원 의료봉사팀 21명과 함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한방의학과, 치과 등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는 암 검진 서비스를 동원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매

결연한 미용팀이 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또한 여수경찰은 전화사기 대응 방법과 수사민원 상담, 정보통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는 거문도와 초도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계속했다. 한편 '해피 아이랜드'는 전남경찰이 올해부터 치안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서민 정책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수박람회 기원

하프돔 등정 성공

여수 산악인이 미국 요세미티 하프돔(Yosemite Half Dome·해발 2693m) 최고봉을 등정,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0 동계 하프돔 원정팀인 김홍곤·김세준·남정아씨는 지난달 21일 암벽 등반을 시작해 27일 하프돔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등반거리만 1250m에 이른 다. 이번 등반에는 여수 향암산악회 회원이자 여수등산학교 강사인 김홍곤 등반대장이 참여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를 홍보하고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요세미티 하프돔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반구형 돔과 같이 생긴 암벽등반코스다. 김홍곤 등반대장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여수시민의 의지를 세계에 알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서부권

목포 '노벨평화상 기념관' 재검토 여론

문화연대 "전시물 확보·주제방향 설정 등 체계적 준비 필요"



해남고구마 씨종자 파종 '7월에 만나요' 해남 밭고구마와 호박고구마 주산지인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에서 올해 밭에 내다 심을 고구마 순을 생산하기 위해 하우스 안에서 마을주민들이 씨고구마를 땅에 묻고 있다. 파종된 씨고구마는 순이 20cm가량 자라는 다음달 말까지 하우스에서 키워 4월부터 6월 상순까지 황도밭에 옮겨 심은 후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해남군 제공>

목포시가 다음달 '노벨평화상 기념관'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은 민선 5기 목포시의 치적으로 성급하게 완성시켜야 할 사업이 아니다"며 "시는 유혹하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착공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지난 4년 동안 목포시가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과 관련, 기념관 건립이 어떤 주제와 형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한차례의 시민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오직 용역기관에만 의존해 추진해 왔으며 목포시의 사업 강행을 지적했다. 또한 목포문화연대는 "현재 목포시 내부에 기념관 건립 업무를 추진할 만한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진정한 기념관이 되고, 목포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표에

서 활동해 왔던 흔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문화적인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기념관 건축물 규모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최우선 과제로 논의돼야 할 문제로 기념관의 주제를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유품 전시 위주로 갈 것인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체험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등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내부 구조, 관련 예산 등이 달라진다"며 "가장 중요한 전시물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

적인 순서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문화연대는 구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활용해서 만든 '목포 근대역사관' 사례를 거론해 삼아 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문화연대는 "철거위기에 있던 건물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문화재가 되고 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했지만, 전시관의 주제와 전시물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개관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사진만 전시된 채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1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학도 일대 1만5600㎡ 부지에 전체면적 5000㎡, 지상 2층 규모의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사업을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완공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lee@

겨울철새·천연기념물 보러가자!

목포 자연사박물관, 내달 6일까지 특별전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신묘년 새해 첫 특별기획전으로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지역을 찾는 겨울철새와 천연기념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목포 남향 앞바다를 즐겨 찾는 오리류와 갈매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 50여 점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양 등 다양한 조, 포유류 박제품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 남향 앞바다는 하상의 대부분이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먹이생물이 풍부한 곳으로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와 흰뺨검둥오리, 알락오리, 꿩이갈매기 등 120여 종이 사계절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남향 앞바다를 찾는 조류 생태사진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지

난 2006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원대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한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과 자연사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과 포유류 박제품을 전시해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lee@

목포 노인일자리아업에 18억2천만원 투입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22개

목포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 노인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아업을 본격 추진한다. 목포시는 총 2095명에 18억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누리강사 파견 ▲노인학대 예방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지역내 거주하는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신체 건강 한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lyc@

정월 대보름 맞아 진도 농수산물 직거래행사

내일까지 서울 광화문역서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진도군은 서울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와 공동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화문역(5호선)에서 진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도에서 생산된 멸치, 새우, 미역, 울금, 홍주, 오색미 등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도시권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값을



받고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군은 행사 기간중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특산물 관련 퀴즈풀이 등 이벤트 행사를 실시, 소비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